

# 9 월 뉴스

	【목차】	
I. 자동차 시장 동향	-----	1
II. 경제 동향	-----	4
III. 세관 뉴스	-----	10
IV. 사회 이슈	-----	11
V. 문화 예술 관련 정보	-----	12

## I. 자동차 시장 동향

### A) 러 자동차 제조업체 인력 감축 전격 단행

AvtoVAZ 는 비용절감을 위해 사무직 과장급과 사원급 인원 2,200 명까지 감축할 예정. 작년 12 월 말경 아프토바즈 직원 수가 65,800 명이었음 (50.6%의 현장직 포함). 14 년 말까지 53,000 으로 줄일 계획.

상트페테르부르크 GM 법인은 1 교대 체제로 전환할 것. 브세볼쥐스크에 위치한 포드와 칼루가의 폭스바겐은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출처: ITAR-TASS News Agency



**B) 자동차 시장 규모 감소세 지속**

2014년 8월 신차 및 승용차 172,015대 판매로 전년도 동기 대비 25,8%까지 하락

**2014/2013 8월, 1월~8월 브랜드별 신차 및 승용차 판매 실적**

BRAND	August			January-August		
	2014 thd.units	2013 thd.units	YoY	2014 thd.units	2013 thd.units	YoY
Lada	26,467	39,079	-32%	247,289	303,357	-18%
KIA	13,644	17,013	-20%	122,920	128,982	-5%
Hyundai*	13,416	14,219	-6%	117,451	118,438	-1%
Toyota*	12,722	13,778	-8%	102,522	101,431	1%
Renault*	12,388	15,181	-18%	124,028	137,827	-10%
Nissan*	11,061	11,611	-5%	102,545	86,963	18%
VW	8,604	13,024	-34%	84,967	103,607	-18%
Chevrolet	7,952	15,984	-50%	81,701	111,671	-27%
Škoda	6,774	7,103	-5%	55,885	56,755	-2%
GAZ LCV*	5,177	7,538	-31%	42,475	52,963	-20%
Opel	4,328	6,933	-38%	42,768	53,077	-19%
Mitsubishi	4,200	6,127	-31%	46,157	49,789	-7%
Mercedes-Benz	4,012	3,914	3%	32,097	27,779	16%
UAZ*	3,894	3,857	1%	26,454	32,998	-20%
Ford*	3,852	8,938	-57%	39,670	69,354	-43%
Mazda	3,705	3,700	0%	31,249	27,142	15%
Audi	2,601	2,767	-6%	23,167	23,902	-3%
Daewoo	2,443	5,403	-55%	29,303	36,585	-20%
BMW	2,182	2,469	-12%	23,917	25,258	-5%
Lifan	1,901	2,646	-28%	13,912	16,729	-17%
SsangYong	1,643	2,934	-44%	15,487	22,450	-31%
Lexus	1,617	1,430	13%	11,921	10,204	17%
Land Rover	1,567	1,702	-8%	13,653	13,009	5%
Honda	1,363	2,303	-41%	13,787	16,823	-18%
Great Wall	1,292	1,230	5%	10,695	13,352	-20%
Suzuki	1,246	2,957	-58%	12,294	19,329	-36%
Peugeot*	1,238	2,788	-56%	14,744	23,252	-37%
Volvo	1,234	1,230	0%	10,327	9,637	7%
Citroën*	1,232	2,559	-52%	13,693	19,331	-29%
Geely	1,226	2,776	-56%	11,897	17,250	-31%

#	MODEL	BRAND	August		
			2014 thd.un	2013 thd.un	YoY
1	Granta	Lada	11,860	14,951	(3,091)
2	Solaris	Hyundai	9,086	8,590	496
3	New Rio	KIA	5,999	7,159	(1,160)
4	Logan	Renault	4,390	4,012	378
5	Duster	Renault	4,376	5,553	(1,177)
6	Kalina	Lada	4,273	2,897	1,376
7	Polo	VW	3,979	5,488	(1,509)
8	Almera	Nissan	3,822	1,370	2,452
9	Largus	Lada	3,554	5,514	(1,960)
10	Priora	Lada	3,354	4,677	(1,323)
11	Camry	Toyota	2,729	2,767	(38)
12	4x4	Lada	2,716	5,885	(3,169)
13	RAV 4	Toyota	2,709	3,542	(833)
14	Octavia A7	Skoda	2,663	922	1,741
15	Niva	Chevrolet	2,562	4,246	(1,684)
16	Qashqai	Nissan	2,537	3,289	(752)
17	New Cee'd	KIA	2,536	2,905	(369)
18	Sandero	Renault	2,452	2,902	(450)
19	Rapid	Skoda	2,430	0	2,430
20	ix35	Hyundai	2,277	2,820	(543)
21	Corolla	Toyota	2,258	2,822	(564)
22	Cruze	Chevrolet	2,039	6,294	(4,255)
23	Sportage	KIA	2,022	2,801	(779)
24	Patriot	UAZ	1,963	1,427	536
25	CX-5	Mazda	1,790	1,789	1

#	MODEL	BRAND	January-August		
			2014 thd.un	2013 thd.un	YoY
1	Granta	Lada	95,154	113,738	(18,584)
2	Solaris	Hyundai	74,438	75,081	(643)
3	New Rio	KIA	60,032	59,046	986
4	Duster	Renault	51,137	53,611	(2,474)
5	Kalina	Lada	44,175	43,767	408
6	Largus	Lada	43,272	35,083	8,189
7	Polo	VW	40,505	47,208	(6,703)
8	Logan	Renault	34,725	34,192	533
9	Priora	Lada	31,636	41,440	(9,804)
10	Almera	Nissan	31,157	5,854	25,303
11	Niva	Chevrolet	26,106	34,062	(7,956)
12	Octavia A7	Skoda	24,714	2,679	22,035
13	RAV 4	Toyota	24,077	26,931	(2,854)
14	4x4	Lada	23,997	31,205	(7,208)
15	Sandero	Renault	23,865	28,946	(5,081)
16	ix35	Hyundai	22,602	20,883	1,719
17	Camry	Toyota	22,038	23,232	(1,194)
18	Cruze	Chevrolet	20,808	37,590	(16,782)
19	Qashqai	Nissan	19,910	22,937	(3,027)
20	Corolla	Toyota	19,831	17,265	2,566
21	Focus	Ford	18,661	45,750	(27,089)
22	New Cee'd	KIA	18,629	21,640	(3,011)
23	Sportage	KIA	18,527	21,831	(3,304)
24	Astra	Opel	16,539	26,346	(9,807)
25	CX-5	Mazda	15,047	11,575	3,472

**2014/2013 7월, 1월~6월 최다 판매 25개 모델**

출처 :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 Automobile Manufacturers Committee

**C) 아프토바즈, 현대 마케팅 매니저 스카우트**

"AvtoVAZ" 부회장이자 판매, 마케팅, 서비스 분야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Martin Franz Sost 의 퇴사가 결정됨. 그는 아프토바즈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약 2 달밖에 근무하지 못함. 후임은 Hyundai Motor CIS 법인의 데니스 페트루닌 상무로 거의 결정 난 것으로 보임. 페트루닌과 아프토바즈 회장은 이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고 있음. 페트루닌은 러시아 시장을 알고 판매 기술과 해외 자동차 서비스와 관련된 고층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BMW 러시아 판매 법인장 및 폭스바겐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한 바 있음. 2008 년 현대자동차 CIS 법인 상무로 임명됨.



출처: Vedomosti, Vladimir Shtanov

## II. 경제동향

### A) 러시아 경제, 서방제재 늪에 빠져 투자·소비 위축

8월 자동차 판매 26% 감소, 고정투자 2,5% 줄어 러시아 경제가 6개월간 이어진 서방의 경제 제재 여파로 좀처럼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서방의 제재가 발효된 이후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민간소비마저 위축돼 러시아가 극심한 경제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함. 서방이 러시아 주요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기업의 자금 대출을 금지한 것만 해도 큰 악재인데, 러시아의 보복성 금수조치로 싼 물건을 수입할 길이 막혀 물가가 더 상승할 것이란 분석. 모스크바 최대 민간 증권 거래업체인 BCS 프라임은 올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8월의 물가상승률 7.6%보다 0.4%포인트 올라간 수치.

### B) 2015년 새해부터 월 최저임금 5,965 루블로 인상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5,554 루블에서 7,4% 인상된 5,965 루블로 인상될 예정.

출처: Izvestia, Rafael Fakhrutdinov

### C) 러시아 메신저 '텔레그램' 한국서 인기 몰이 중

러시아 프로그래머 파벨 드로프가 개발한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이 한국 스마트폰 유저들을 사로잡음. 파블로 두로브프는 러시아 소셜네트워크인 '브간딱제' (VKontakte, VK.com) 개발자이기도함. '라씨스카야 가제따'는 최근 한국 당국이 모바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한국 토종 어플인 '카카오톡'을 버리고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함. 프로그램 다운자 수는 이미 30만 회수를 넘어서면서 카카오톡을 훨씬 앞섬.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달리 서버를 저장하지 않고 자동삭제함. 이를 두고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한편 당국의 메신저상의 개인 메시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브라질 누리꾼들, 러시아 SNS 'VK' 대거 등록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Orkut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브라질 누리꾼들이 러시아 유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VK.com 에 대거 회원으로 등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이틀간 브라질 회원수가 2,000%나 증가했다고 게오르기 로부시킨 회사 공보처장이 공개함. 공개 내용에 따르면 지금도 계속해서 브라질 회원수 가 늘고 있으며 그룹을 만들고 사진을 올리며 매우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해 지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밝혀짐. 지금 현재 SNS VK.com 사이트에 등록된 브라질 회원 수가 약 30 만여 명으로 기록되고 있음. 2004 년 구글이 출시한 Orkut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2014 년 6 월 30 일 프로젝트 누출 이유로 회사 결정으로 문을 닫음. 브라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중에서 50% 이상의 누리꾼들이 회원으로 등록할 만큼 큰 인기를 누림.

### 삼성전자, 러시아 인기 소셜 네트워크 'Vkontakte' 앱 공모전

삼성전자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개발 공모전을 공고함. 오픈 소스 모바일 운영 체제인 OS 타이젠에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브간딱쨌(러시아어: В К о н т а к т е, 영어: Vkontakte, VK)용 앱 개발 공모전으로 우승자에게 3 백만 루블 상금이 주어진다고 Digit.ru 가 공개함. 삼성전자는 공개성명을 통해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개발자의 능력발휘 기회와 포상이 주어짐과 동시에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 '브간딱쨌'에서 누리꾼들에게 더 편리한 교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힘. 삼성을 포함해 일련의 구글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에 덜 의존하길 원하는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타이젠 모바일 장치용 운영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음.

### 러시아, 구글플레이 앱 다운로드 수 한국 따라 잡기 시작

앱애니(AppAnnie) 분석 서비스 기관이 러시아 모바일 앱 시장 조사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러시아가 다운로드 대표 시장 중 한곳으로 조사됐다고 '베도모스티' 신문이 보도. 2014 년 2 분기 구글 플레이를 통한 다운로드 수가 미국, 브라질, 인도, 한국에 이어 5 위를 기록.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한 순위조사에서 러시아는 5 위권내 진입하지 못함. 앱애니(AppAnnie) 분석 서비스 기관 조사를 따르면 러시아는 현지 기업이 생산하는 모바일 앱이 독점할 수 있는 몇개 안되는 시장 중 하나임.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구글 검색 앱이 세계 공동 대세라면, 러시아는 올해 7 월 조사에서 Mail.ru 와 Yandex 의 검색, 뉴스, SNS 등 앱이 선두자리를 차지. 그 뒤를 이어 3, 4, 5 위 자리에 Outfit 7(영국), 페이스북, Rovio ('앵그리버드' 개발자)가 각각 차지.

2014 년 2 분기 러시아에서 가장 수익성 있는 전략 사업이 게임 사업으로 조사됨. 특히,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Clash of Clans' 게임을 만든 슈퍼셀 회사에 큰 수익을 안김. 그 뒤를 이어 Castle Clash 게임 수입이 2 위, Galaxy Legend 가 3 위를 차지함.

### D) 러시아 재무부, 비트코인 금지 법안 발표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러재무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10 월 3 일(현지시각) 공개함. 이 법안은 가상화폐 제작부터 사용, 홍보에 이르기까지 가상화폐에 관한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웠던 러시아 비트코인 산업이 아예 뿌리뽑힐 것으로 보임. 이번 법안은 지난 8 월 러 재무부가 ‘화폐 대용물’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 화폐 대용물은 러시아 법정화폐인 루블화처럼 돈으로 쓰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가리키는 말이다. 러 재무부가 공개한 법안은 개인과 사업체 모두에 적용. 이 기사가 비트코인 금지 법안이 통과된 러시아에서 발행된다면 <블로터>는 최대 2673 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함.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만들거나 발행하면 자산이 동결되고 벌금 3 만~5 만 루블(750~125 달러)을 내야 함. 공직자일 경우 2 배 많은 6 만~10 만루블(1500~2500 달러)을 벌금으로 내야함. 법인이 가상화폐를 만들다 적발되면 50~100 만루블(1 만 2500~2 만 5 천달러)을 내야함. 가상화폐에 관한 정보만 공유해도 벌금을 물어야함. 화폐 대용물에 관한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5 천~5 만 루블(125~1,250 달러) 공직자는 2 만~10 만 루블(500~2,50 달러), 법인은 50 만 ~ 100 만 루블 (1 만 2500 ~ 2 만 5 천달러) 라는 거금을 벌금으로 내야 함.

비트코인 거래소 ‘인터머니익스체인지’ 설립자 안톤 베레시차킨은 <코인데스크>에 러시아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함. “이전 중앙은행 발표는 러시아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FATF) 등 다른 규제 기관처럼 비트 코인을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아주 작아요. 사실, 제한과 법적 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비트코인 시세는 곤두박질침. 10 월 3 일 370 달러선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10 월 6 일 현재 300 달러대까지 떨어졌고. 10 월 5 일 한때는 290 달러를 기록하기도 함.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



▲러시아 재정부가 비트코인 금지 법안을 공개하자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짐(출처 : [코인데스크 가격 지수](#))

### E) 러시아 고속도로변 다목적 서비스 인프라... 새로운 사업으로 부상

러시아가 고속도로변 휴게시설 개발을 시작. 연방 정부 지원으로 조만간 전국의 고속도로변에 주유, 야간 숙박이 가능하고 직접 바비큐를 굽거나 축구도 할 수 있는 복합적 휴게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 이미 다목적 노변 센터 건설 국가프로그램이 마련된 상태.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시작은 주유소 부대시설 조성사업이 될 것임. 조만간 러시아의 주유소들이 종합적 관광휴양구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임.

#### 발전 계획

러시아 도로에는 상점, 카페, 주차장 등 연계 인프라가 미흡함. 러시아 도로청 자료를 보면 40% 노변 시설에 주차 공간이 없으며, 겨우 15%의 시설에만 화물차 주차 시설이 갖춰져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특별프로그램이 마련됨. 구상 자체는 이미 2013 년에 채택되었으며 계획에 따르면 도로변 인프라는 주유소 부대시설의 형태로 그리고 독립된 형태로 조성될 것. 최초 시범 시설 건설은 2015~2016 년에 시작. 현재는 투자자 모색과 함께 프로젝트 자체, 즉 시설에 대한 통합적 기준 및 국가 지원책이 명시된 로드맵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새 프로그램은 2009 년에 채택된 또 하나의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될 것. 이 프로그램은 고속도로 주변에 주차 및 주유시설, 화장실, 카페 및 레스토랑, 상점, 세탁소 등이 포함된 다목적 도로서비스 구역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음. 도로 상태를 책임지는 러시아 도로 청 공보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다목적 구역에는 무선인터넷이 제공될 수 있으며 운전자용 호텔, 세차장, 정비소, 지역 토산품 판매소, 자동차 여행자용 캠프장, 현금인출기 및 심지어 헬기장까지 포함될 수 있음. 현재 경매 방식으로 투자자 선정이 진행되고 있음. 다목적 구역 1 개소에 들어갈 투자액은 530 만~670 만 달러(2 억~2 억 5000 만 루블)이 될 것. 5 년 간 세제혜택 제공(재산세 면제 포함), 연방재정 지원금을 통해 기업들을 프로젝트에 유치할 계획. 전기수도·통신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 및 은행 납입금, 즉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

#### 최초의 성공

주유소 부속 인프라 개발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즉 주유소 소유자와 소매업자도 참여하게 될 것. 연계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음. 4 년 전만 해도 주유소에 딸린 상점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회사는 BP 같은 다국적 체인분. 러시아의 주유소 소유자들은 주유소 공간을 임대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상황이 바뀜.

"러시아 석유회사들은 주력사업 수익성 저하에 직면했고 이는 새로운 수입원의 모색으로 이어졌다." 미하일 부르미스트로프 'INFOline-아틀란티카' 사장이 설명함. 그 결과 석유회사들은 임대사업을 접고 직접 사업에 나섬. 주유소 역할 강화와 연계상품 판매 증진이라는 새로운 전략의 개발은 이 분야의 성장 속도 덕분에 가능함. 부가 사업 수익이 주 사업 수익보다 더 빠르게 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스프롬네프티의 2013 년 '비주력' 상품 수익은 그 해 동안 44% 증가해 2 억 9 천만 달러(106 억 루블)를 달성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 억 7 천만 달러(62 억 루블)를 벌어들였다.

다른 석유 대기업 로스네프티도 2014 년 상반기 주유소 비핵심상품 판매액이 31% 증가했다. 러시아 중부지역에 위치한 루코일 주유소에서는 2014 년 상반기에 연계상품 판매액이 10% 증가했다. "러시아의 모든 대형 주유소 체인들이 현재 연계상품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미하일 부르미스트로프 'INFOline-아틀란티카' 사장이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분야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아직 러시아 주유소들은 연계상품으로 총 수익의 10% 이하를 얻고 있으나, 외국 주유소들은 노변 서비스에서 수익의 30~70%를 얻고 있다." 부르미스트로프 사장이 강조했다. 그는 주유소의 강점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소비자 확보가 보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르미스트로프의 의견으로는 이 소비자들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동차용품 자체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유소 상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인 유리세척액을 제조하는 것이다. 러시아에는 현재 2 개 회사만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트라사(Трасса)'사는 모스크바에서 활동한다. 트라사는 고객에게 음식점 및 연계상품 상점이 제공되는 자사 주유소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다. 나머지 한 회사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객의 지속적인 유입이란 면에 소매상 체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러시아 최대 소매유통 5 개사 안에 드는 '마그니트(Магнит)' 체인은 이미 석유회사 중 한 곳과 주유소에 자사 지점을 부설하는 일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가진마가지노프(Магазин магазиновов)'사의 컨설턴트 알리나 오가네산의 자료에 따르면 요식업 체인 'Selway' 카페와 '버거킹'이 주유소에 관심을 보였다. 오가네산은 "주유소 모델, 즉 카페와 주유소 연계 모델은 투자회수율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투자회수 기간이 20~30% 감소하기 때문이다."

#### **F) 러시아 루블화 환율 고공행진 어디까지?**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6 일 오전(현지시간)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사상 처음 40 루블을 넘어 40.01 루블을 기록함. 전날 증가보다 5 코페이카(루블 아래 단위) 오른 것. 유로 대비 루블화 환율도 전날 증가보다 19 코페이카 오른 50.12 루블에 거래됨. 지난해 12 월 31 일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32.90, 유로 대비 루블화 환율은 45.23 이었음.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를 풀며 루블화 가치 하락 추세를 차단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음. 전문가들은 루블화 환율 급등이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지정학적 요인과 국제 유가 하락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이 지난달 초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산발적 교전을 계속하면서 휴전 무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루블화 환율 불안을 부추기고 있음. 국제 저유가도 루블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영국산 브렌트유, 미국산 서부텍사스유(WTI) 등의 가격이 모두 배럴당 90 달러 안팎 수준에 머물면서 하락세를 지속. 모스크바 현지에선 루블화 환율 폭등이 러시아 경제를 뒤흔드는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환율 고공행진이 이번 주 중엔 멈출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음. 모스크바 '제니트' 은행 분석가 블라디미르 예브스티페예프는 "40 루블의 심리적 상한선을 넘어서면서 투기꾼들의 달러 매입 열풍이 멈출 것"이라며 "외환에 대한 실질 수요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루블화 환율 급등 현상이 이번 주 중에 멈출 것"이라고 전망.

### III. 세관뉴스

#### A) 러, 對 우크라이나 금수 확대, 과자류 전면 수입금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과자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AFP 통신이 5 일(현지시간) 보도함.

러시아 소비자 권리 보호 감독청인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Rospotrebnadzor)는 이날 "조사 결과 2 개의 우크라이나 기업이 만든 제품에서 잘못된 상표 표기가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과자 제품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과자 수입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지난해에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창업한 로센의 초콜릿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러시아는 과자 외에도 품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산 유제품과 과일주스, 맥주의 수입을 금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분리주의 반군 간 갈등 상황에서 러시아가 수입 금지조치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B) 유라시아 & 유럽 정보 교류

2014 년 9 월 24 ~ 25 일 유라시아 경제협회 장관은 폴란드 재정&통관부서장인 Tomash Mihalek 과 만남을 가짐. 유럽연합 transit 시스템의 특징 및 폴란드의 역할, 기능에 대하여 설명. 또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창문» 개념 도입에 관하여 설명. Vladimir Goshina 장관은 유라시아와 유럽간의 transit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협의 함.

#### C) 철도 통관시 사전 화물 정보 전달 의무

2013 년 9 월 유라시아 경제협회에서 철도운송 수입통관시 사전 화물정보 전달 의무조항 채택. 201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음. 러시아 국경 도착 최소 4 시간 이전 화물정보 전자상으로 전달 완료 되어야 함. 사전 화물 정보 전달 적용을 위해 2014 년 9 월 15 일 “러시아 철도” 사이트에 porter 생성함. 철도 화 물은 transit 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데, 사전화물 정보를 transit 면장작성에 이용가능함.



#### D) 러시아-멕시코 무비자 협정 동의

러시아와 멕시코가 무비자 협정에 동의함.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첫 번째 나라임. The 러연방 외부무 장관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멕시코의 온두라스 지역 방문을 추천함.

출처: ITAR-TASS News Agency, Elena Nagornyykh



## IV.사회이슈

### A)모스크바 공원 발열 벤치 설치 예정

모스크바 시 행정부는 올해 겨울까지 시 전역 공원에 발열 벤치를 설치할 계획. 이 계획은 9 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청이 주관한 "Active Citizen" 설문조사에서 채택이 됨. 제조업자의 말에 따르면 발열 벤치 한 개 가격은 적어도 3 만 루블 정도 할 것. 방문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디자인 또한 심도 있게 고려할 것이며 모스크바 공원 관리청은 이번 프로젝트의 스폰서를 구하고 있음. 새로운 벤치들은 우선적으로 놀이터와 카페의 입구 근처에 설치될 것.



출처: Izvestia newspaper, Anzhelina Grigoryan

### B)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세계 114 위에 올라

모스크바의 로모노소프 주립 대학교가 (MGU) 전 세계 대학 중 114 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6 위 상승했으며 러시아 대학 중 유일하게 200 위 안에 들. 매사추세츠 공대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1 위에 머물렀으며 캠브리지 대학이 2 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3 위를 차지함. 하버드 대학이 4 위 옥스퍼드 대학이 5 위 차지.



출처: ITAR-TASS News Agency, Tatiana Polinyuk

## V. 러시아 문화 및 예술

### A) 지식의 날 (9/1)

9 월 1 일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첫 번째 학교 종소리를 듣는 날임 (반대로 '마지막 종소리'라는 러시아식 표현은 '졸업'을 의미). 입학생이든 재학생이든 간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손에 꽃(대부분 한 송이)을 들고 등교를 함. 이 꽃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함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에게 선사하는 용도이며 러시아의 전통 중 하나임. 러시아에서 새 학기가 시작하는 9 월 1 일은 '지식의 날'이란 다른 표현으로도 불리며 이런 전통적인 표현 외에 현대에는 새로운 표현도 등장하고 있음. '부모(특히 모친) 해방의 날', '인터넷 정화의 날'이란 농담 섞인 표현이 있음.



출처: Wikipedia

### B) 불쇼이 극장 공사 완료 재개관

러시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제프가 극장 단원들과 함께 전통대로 5 루블짜리 동전을 도끼로 내려찍는 의식으로 개관식을 시작함. 극장 보수공사는 2011 년에 시작되었으며 정부 예산 약 7 십억 루블이 책정됨.

출처: ITAR-TASS News Agency



### C) SKA 시즌 첫 경기에서 KHL 기록 깨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하키팀 “SKA” 가 KHL 홈경기에서 모스크바 지역 ‘아틀란트’ 팀을 5:4 로 이김. SKA 는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9 연승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음. 또한 챔피언십이 시작된 후부터 1 점도 내주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시한번 KHL 챔피언십을 향해 전력 질주할 것 .

출처: ITAR-TASS News Agency, Boris Khodorovsky



#### D) 모스크바 "Federation Tower"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모스크바의 339m 짜리 "Mercury-City Tower"를 제치고 343m 의 "Federation Tower"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선정됨. "Federation Tower"는 모스크바에 건설 중인 초고층 건물 단지로 243m, 63 층짜리 서부 타워와 374m, 95 층짜리 동부 타워가 맞대고 있는 상태로 건설되며 이 사이에 건설되는 첨탑이 443m 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2003 년 착공하여



2010 년 65 층짜리 서부 타워가 먼저 건설되었으며 동부 타워는 공사를 중단하다가 말다가를 반복하고 있음.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마천루인 높이 343m 의 비즈니스센터 '페데레이션 타워'가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건축 총괄 책임자인 미하일 스미르노프 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함. 그는 "타워 완공은 일정에 차질 없이 올해 말 완료된다"며 "비즈니스 센터인 모스크바 시티의 주력 마천루가 될 것"이라고 소개함. 모스크바 시티는 동부 타워와 서부 타워가 마주보고 있게 설계됐으며 서부 타워의 경우 242.4m 로 63 층 규모며 이미 완공됨. 동부 타워는 95 층이 될 예정이며 높이는 373.3m.

#### E) 러시아인, 모스크바 수도 이전 반대 [췌러시아여론연구센터]

최근 전(全) 러시아 여론연구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러시아인 3 명 중 2 명이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짐.

“러시아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다른 대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66%가 부정적 반응을 보임. 25%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했으며 9%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임. 35% 응답자는 수도 이전 계획의 '의미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고, 15% 응답자는 모두가 이미 모스크바가 수도라는데 익숙해졌다고 답변했으며 11% 러시아인들은 모스크바 물가가 비싸고 복잡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함. 5%는 이민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고, 12%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 이외, 22% 응답자들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러시아의 상징인 모스크바에 추가 재정을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반면, 75%는 추가 예산으로 시베리아, 극동 및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고 밝힘.

## F) 2014 년 상반기 모스크바 한국 관광객 42% 증가

2014 년 상반기 모스크바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도 같은 시기와 비교해 4% 증가했다고 화요일 미하일 두브롭스키 모스크바 관광숙박업위원회 공보실장이 공개함.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 각각 13-6-1-1% 감소율을 보임. 일본, 이탈리아, 중국, 터키, 이스라엘은 각각 5-2-13-9-9% 성장. 금년 러시아와 무비자 협약이 체결된 한국은 월등하게 42% 증가율을 보임.

최근 세르게이 시필코 모스크바 관광숙박업위원회 의장은 2014 년도 말까지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하는 외국인 수가 570 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 만 개 이상의 숙박시설에서 약 530 만 명의 투숙객이 예상된다고 밝힘.

출처: ITAR-TASS News Agency, Georgy Letov